

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

김명주 myoungjoo.kim@miraeeasset.com

경민정 minjeong_kyeong@miraeeasset.com

유통 코멘트

Walmart, 인스타카트와 협업을 통해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https://cnb.cx/3gPZGjJ>

- Walmart, 인스타카트와 협업을 통해서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 현재 3곳 매장에서 파일럿 배송 서비스 제공 중. 향후 확대 가능성 높음
- 월마트는 매장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확대 중. 3,200개 매장에서 픽업 서비스 제공
- 향후 월마트는 매장을 활용하여 1) 당일/익일 배송 커버리지 확대 및 2) 배송 카테고리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
- 월마트는 온라인 Capa 확장에 가장 유리한 유통사. 월마트의 매장은 90% 이상 미국 소비자에게 근거리(10miles)에 접근 가능함
- 1) 월마트의 온라인 Capa 확장과 2) 미국 내 여전히 유효한 온라인 식품 구매 수요(20년F 침투율 3.2%)에 따라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 지속 상승 예상
- 1)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2) 월마트 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FY20년 6.3%→FY21년F 9.9%)는 월마트의 기존점 상승으로 이어질 것

관련 리포트: <https://bit.ly/2CmSpZG>

전일 주요 뉴스

- 생각대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3,100원→3,500원) 인상. 쿠팡(쿠팡이츠)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 <https://bit.ly/2DSb3Jd>

① 롯데쇼핑 (전일주가 +0.63%)

- 롯데마트, 내년까지 온라인 물류 거점 매장을 40여 곳으로 확장 및 온라인 1일 배송 건수 50% 확대 계획 <https://bit.ly/30Kxhpn>

② GS리테일 (전일주가 +1.50%)

- GS리테일, 18년 투자한 미국 유기농 전문 온라인몰 슬라이브마켓으로부터 유기농 와인 도입 후 판매 <https://bit.ly/2DRspWM>

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

종목명	티커	투자의견	목표주가	주가	시가총액 (십억원)	성과(%)				
						1W	1M	3M	YTD	1Y
롯데쇼핑	023530	Trading buy	105,000	80,400	2,274	3.9	2.3	-11.2	-40.7	-35.2
이마트	139480	매수	190,000	122,000	3,401	7.5	11.9	9.4	-4.3	15.6
호텔신라	008770	Trading buy	100,000	72,500	2,845	4.0	5.4	-9.1	-20.2	-7.6
신세계	004170	매수	360,000	212,000	2,087	2.7	2.2	-12.9	-26.6	-7.8
롯데하이마트	071840	Trading buy	35,000	31,050	733	4.9	-8.7	12.9	0.5	-3.4
현대백화점	069960	매수	90,000	62,500	1,463	5.2	6.5	-8.5	-24.8	-10.7
GS리테일	007070	매수	48,000	33,850	2,606	-1.2	-7.5	-11.0	-13.8	-14.1
BGF리테일	282330	매수	195,000	133,000	2,299	9.0	2.7	-11.3	-21.5	-36.1
지누스	013890	매수	150,000	89,900	1,295	9.5	-2.9	7.4	-3.1	28.4

주: 2020.8.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

이름	티커	시가총액		수익률					P/E(X)		P/B(X)		ROE(%)	
		Local	USDmn	1W	1M	3M	YTD	1Y	20F	21F	20F	21F	20F	21F
롯데쇼핑	023530 KS	2,274	1,918	3.9	2.3	-11.2	-40.7	-35.2	-	11.1	0.2	0.2	-0.6	2.0
이마트	139480 KS	3,401	2,869	7.5	11.9	9.4	-4.3	15.6	13.3	13.1	0.4	0.4	3.1	2.8
호텔신라	008770 KS	2,845	2,400	4.0	5.4	-9.1	-20.2	-7.6	-	20.8	3.9	3.4	-23.0	14.6
신세계	004170 KS	2,087	1,760	2.7	2.2	-12.9	-26.6	-7.8	21.0	7.7	0.5	0.5	2.6	6.6
롯데하이마트	071840 KS	733	618	4.9	-8.7	12.9	0.5	-3.4	8.7	7.5	0.4	0.4	4.3	4.8
현대백화점	069960 KS	1,463	1,234	5.2	6.5	-8.5	-24.8	-10.7	9.7	6.4	0.3	0.3	3.6	5.1
GS리테일	007070 KS	2,606	2,198	-1.2	-7.5	-11.0	-13.8	-14.1	14.3	11.6	1.1	1.0	8.2	9.5
BGF리테일	282330 KS	2,299	1,939	9.0	2.7	-11.3	-21.5	-36.1	17.2	14.1	3.3	2.8	20.0	21.3
지누스	013890 KS	1,295	1,092	9.5	-2.9	7.4	-3.1	28.4	13.5	10.4	2.8	2.3	22.2	23.4
Walmart	WMT US	442,788	373,478	0.2	0.9	6.6	11.0	25.5	26.1	24.3	3.7	4.7	16.4	20.3
Kroger	KR US	32,308	27,251	-1.0	4.8	3.9	20.8	51.8	12.4	13.5	2.6	2.5	25.1	18.4
Costco	COST US	177,977	150,118	0.1	4.2	9.6	15.7	25.3	39.7	36.3	8.5	7.4	22.8	21.9
Target	TGT US	78,808	66,472	1.9	11.8	10.6	3.7	62.1	25.6	19.9	5.5	5.2	20.5	26.7
Macy's	M US	2,626	2,215	16.5	5.5	35.5	-58.0	-63.0	-	14.1	0.9	1.0	-33.5	0.1
Bestbuy	BBY US	31,917	26,921	3.7	22.8	33.6	18.7	55.6	18.3	16.3	6.5	6.3	37.6	38.4
Nordstrom	JWN US	3,146	2,654	16.1	7.2	-1.3	-58.7	-40.9	-	9.6	5.4	6.4	-66.4	42.9
Tempur Sealy	TPX US	5,330	4,496	5.2	19.0	60.3	0.1	13.7	16.6	13.6	16.6	8.0	85.3	285.8
Sleep Number	SNBR US	1,565	1,320	2.7	-10.1	45.2	-3.3	8.6	18.3	15.4	-	-	-59.2	-198.8
Ocado	OCDO LN	25,308	21,345	3.1	10.5	15.5	72.9	85.5	-	-	17.0	19.6	-23.0	-25.6
Isetan Mitsukoshi	3099 JP	2,380	2,007	5.5	-6.3	-22.0	-45.3	-29.9	-	55.5	0.4	0.4	-9.3	1.0
Takashimaya	8233 JP	1,600	1,349	6.2	0.6	-20.5	-34.4	-34.6	-	11.4	0.3	0.3	-3.8	2.8
Seven & I holdings	3382 JP	34,128	28,786	3.7	4.4	-0.3	-13.9	-7.9	19.9	14.2	1.1	1.1	5.8	7.9
Familymart	8028 JP	13,186	11,122	-1.0	1.0	25.2	-11.2	3.8	23.6	21.8	1.9	1.8	9.2	9.0
Lawson	2651 JP	6,003	5,063	0.8	-2.5	-3.8	-13.4	-1.8	40.5	23.5	2.0	1.9	5.2	8.6

주: Local은 십억원, 십억엔, 백만달러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 GS리테일, 호텔신라, 롯데쇼핑, 이마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